

# 일본의 삼림자원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俞起濬\* · 池鎮浩\*\*

(\*e-mail : kjyou@kongju.ac.kr)

(\*\*e-mail : jh60jee@hanmail.net)

---

## 目次

---

1. 머리말
  2. 삼림자원의 활용전략
  3. 삼림자원의 활용을 위한 정보발신 전략
  4. 삼림자원 활용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
  5. 맺음말
- 
- 

## 1. 머리말

한 지역이 훌륭한 자원을 보유하면서도 그것이 지역의 매력물로 작용하지 못하고 또한 지역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촌 지역에서는 삼림 또는 삼림 내에 있는 자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이용이 미흡하여 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최근 환경이나 자원의 유한성이 인식됨과 동시에 우리의 가치관도 자연과의 소통이나 여유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삼림에 관해서도 국토보전, 수질원의 보존 등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삼림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이야기되고 삼림을 목재 생산기지로서만이 아니라 삼림을 건강만들기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또한 자원봉사 등으로 많은 주

---

\* 공주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교수, 제1저자

\*\*건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공동저자

민이 직접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포함한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삼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삼림은 정신적, 물질적 양면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존재임과 동시에 인류의 생존기반인 지구환경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 지역사회에서도 삼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류생활의 기반이 되는 삼림의 여러 기능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며 현재의 우리들도 삼림의 혜택을 누리며 삼림의 다양한 역할을 깨닫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임야청(林野庁), 국토녹화추진기구(国土緑化推進機構), 아름다운 삼림만들기 전국추진회의(美しい森林づくり全国推進会議) 등을 통하여 삼림을 단순히 목재와 그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활동의 장소로서 만이 아니라 자연체험학교의 운영과 체험형 관광, 교육상품, 삼림테라피(森林セラピー, Forest Therapy)<sup>1)</sup> 프로그램 등 환경 메시지성이 있는 새로운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 적극 개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삼림활동에 참가를 독려하며 창조적 삼림 만들기 사업<sup>2)</sup>을 추진하며 삼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하고 삼림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일본의 대표적인 자연체험학교시설인 요코하마 자연관찰의 숲과 야마나시현의 KEEP Foresters School 등을 현지 방문조사하고 관련 자료와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자연체험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운영방안을 고찰한 김상윤의 연구와 보다 매력적인 삼림경관을 만들기 위함이나 삼림경관을 만들어 그를 이용한 관광, 삼림테라피, 환경교육 등으로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고찰한 奥敬一의 연구와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삼림레크레이션의 역사적 전개 및 중요시책을 검토한 김상윤의 연구 그리고 그린투어리즘의 대상으로서 산촌의 활용에 관한 박광순의 연구 등이 있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건강지키기와 삼림활용 교육 등으로 삼림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최근 변화되는 지역의 삼림활

1) 삼림테라피란 숲의 풍경, 향기, 소리, 감촉 등 숲의 생명이나 힘을 실감하는 것에 의해 우리들의 심신에 원기를 회복시키려는 것으로 소위 삼림욕으로 부터 일보 진전된 것이다. 삼림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마음과 신체의 건강에 활용하려는 시도이다.(www. forest-therapy.jp)

2) 社団法人国土緑化推進機構 平成18年度「創造的森林づくり推進事業」

3) 金相潤(1996), 「森林レクリエーション政策の社会経済学的研究」, 東京大学 博士学位論文

김상윤(2001), 「자연체험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 및 기능 증진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5권 4호.

박광순(2001), 「일본산촌에서의 그린투어리즘의 도입, 전개, 성과(II)」,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5권2호

奥敬一, 香川隆英, 田中伸彦編著(2007), 『魅力ある森林景観づくりガイド : ツーリズム、森林セラピー、環境教育のために』, 全国林業改良普及協会

용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시점에 산촌지역의 산림자원 등을 활용하여 <도시와 농산촌의 교류> 또는 <건강 만들기> 등을 키워드로 하여 새로운 지역 서비스산업과 지역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鹿児島県)의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 特定非営利活動法人)의 자료를<sup>4)</sup> 중심으로 산림자원의 활용전략과 산림자원의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발신전략 그리고 산림자원 활용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에 관하여 살펴보려한다.

이러한 일본의 산림활용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는 산림의 다각적인 활용을 통하여 산촌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2. 산림자원의 활용전략

일본에서는 산림을 단순히 목재 생산의 장소로서만이 아닌 체험형 관광, 교육상품, 산림테라피(森林セラピー, Forest Therapy)의 운영 등 환경 메시지성의 새로운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도 개발하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산림활동의 참가를 촉진하게하면서 나아가 지역의 풍부한 숲 만들기에 기여하고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산촌에서는 도시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의 정비와 함께 지역의 자연이나 전통, 문화 등을 안내 지도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고, 고령자가 지닌 기술이나 경험 등을 적극적 활용하면서 산림 산촌체험형 투어리즘과 산림환경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유입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는 지역이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산림을 목재의 생산 활동의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산림환경을 활용하여 환경메세지성이 강한 상품을 만들어 운영하며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 환경메세지성이 강한 산림의 활용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sup>5)</sup>. 하나는 의료관계자와 제휴를 통한 산림을 활용한 산림테라피(森林セ

4)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エコ・リンク・アソシエーション(2006), 『森林体験型教育プログラム—新たな森林パートナーシップの創造—実施計画書』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エコ・リンク・アソシエーション(2007), 『森林体験型教育プログラム開発による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事業報告書』

5)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エコ・リンク・アソシエーション(2007), 『森林体験型教育プログラム開発による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事業報告書』 p.2

カピ一)의 운영이고 다른 하나는 삼림체험형 종합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 2-1. 삼림체험형 종합학습프로그램의 운영

삼림체험형 종합학습프로그램의 운영은 삼림환경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삼림환경교육이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범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자연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교육은 1970년대에 독일에서 이루어지는데 독일 교육의 특징은 삼림 및 자연환경의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자기학습식(self-guided)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sup>6)</sup>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삼림레크레이션 이용 환경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소위 삼림인타프리타(森林インタープリター)라는 삼림가이드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학습식(self-guided) 방법보다는 지도식(guided program)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라 생각된다.<sup>7)</sup>

삼림환경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활동을 통하여 삼림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삼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인간과 자연의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삼림은 적절한 보전을 도모하면서 이용하는 한,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곳으로서 인식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삼림환경교육은 삼림이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생태관계를 일깨우고 그 속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삼림의 다양성, 상호관련성 또는 삼림과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보면 삼림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야외교육이나 환경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체험을 통하여 배우는 기회가 제한되어있고, 심신의 강인함이 약해져가고 있는 현대의 아이들에게 삼림환경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과제를 찾아서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힘을 키우게 할 수 있다. 삼림 안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새로운 발견이나 놀라움과 감동을 맛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삼림환경교육은 삼림이 학교이고 또한 스스로의 행동으로 체험하며 배우는 것으로써 아이들의 삶의 힘을 키우게 하는 교육이라 할

6) 자기학습식(self-guided) 삼림환경교육이란 삼림을 찾는 사람이 해설자나 안내자 없이 현장에 준비된 해설판과 안내책자를 이용하여 자연에 대한 섭리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이고 지도식(guided program)삼림환경교육이란 피교육자가 교육자인 자연해설가와 직접 현장에서 함께 자연을 체험하는 방법을 말한다.

(남효창(1999), 「삼림환경교육- 독일의 자기학습식(self-guided)현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삼림휴양연구』 제3권12호 p.p 16-17)

7) 金相潤 (1996), 「森林レクリエーション政策の社会経済学的研究」, 東京大学 博士学位論文, p.p153-211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가 강인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일정기간 동안 산촌에 체재하고 산촌의 풍부한 자연이나 문화 등에 접하면서 다양한 삼림체험 활동이나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sup>8)</sup>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도 삼림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삼림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목재 등의 자원 공급처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삼림환경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의 삼림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2-1-1.삼림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징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는 삼림·산촌 체험형 투어리즘과 삼림환경 교육 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체험학습 프로그램<표-1>과 종합학습 프로그램<표-2>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sup>9)</sup>

<표-1> 체험학습 프로그램

구분	기본 : 농림업 체험	복합 : 농림업+체험교실, 공방	투어 : 체험 교실&창작 공예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업 체험</li> <li>● 야채 심기, 수확 작업</li> <li>● 메밀 심기, 수확 작업</li> <li>● 꿀 수확, 잼 만들기 체험</li> <li>● 모내기, 벼 베기 체험</li> <li>● 임업 체험</li> <li>● 삼림정비(잡초베기, 간벌 등)</li> <li>● 목공 교실, 버섯 식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업 체험과 식문화</li> <li>● 목공교실+메밀 치기 체험</li> <li>● 산채, 야채 수확+향토음식 조리</li> <li>● 체험교실, 공방과 농림업 체험</li> <li>● 삼림정비 + 잼 만들기</li> <li>● 자연관찰 + 도예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마다 체험</li> <li>● 삼림 정비+삼림 테라피</li> <li>● 목공 체험+승마 체험</li> </ul>

8) 이는 어린이 농산어촌교류프로젝트사업이다. 2008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총무성의 3성이 제휴한 약 470억 엔 규모의 방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이 배우려는 의욕이나 자립심, 배려심, 규범의식 등을 기르면서 강인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교육활동의 성격으로 농산어촌에서의 장기 숙박 체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総務省 報道資料 (平成 19年 8月31日), 総務省, 文部科学省, 農林水産省による連携事業, 「子ども農山漁村交流プロジェクトの推進について -1 2 0万人・自然の中での体験活動の推進-」( [http:// www. soumu.go.jp](http://www.soumu.go.jp) ) (유기준(2009), 「일본그린투어리즘의 전략과 실제」, 『일본문화연구』 제40집 p.397)

9)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エコ・リンク・アソシエーション(2007), 『森林体験型教育プログラム開発による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事業報告書』 p.p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채 채취</li> <li>• 삼림 테라피</li> </ul>		
--	---	--	--

체험학습프로그램은 기본, 복합, 투어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체험위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있다. 기본이 되는 농림업의 체험뿐만 아니라 목공, 도예, 승마 등 즐기면서 자발적으로 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삼림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체험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였다.

<표-2> 종합학습 프로그램

교실	농림업과 순환형 사회	자연환경, 삼림 보전과 보호	삼림 테라피와 건강 만들기
주 제	토산물의 소비추진과 농림업 배우기	삼림간벌작업과 목재배우기	숲의 다양한 기능 배우기
기 본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촌의 생활문화와 &lt;식&gt;</li> <li>• 고장의 신선한 야채로 향토요리 만들기</li> <li>• 산채 채취와 산채 요리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림정비와환경보호와임업</li> <li>• 임업의 현상과 삼림정비를 생각한다.</li> <li>• 수원함양과 삼림환경보호를 생각한다.</li> <li>• 잡초베기, 간벌 실습 체험 목질 바이오매스를 살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림테라피의 역할</li> <li>• 삼림테라피의 효과를 배운다</li> <li>• 삼림테라피 체험</li> <li>• 식이요법 체험</li> <li>• 삼림테라피 프로그램 제안</li> </ul>
심 화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을 테마로 순환형 사회를 검증</li> <li>• 바다와산의 관계를배운다.</li> <li>• 음식의 역사에서 배우는 농산촌 생활</li> <li>• 산업으로부터 보는 농산촌 생활</li> <li>• 순환형 사회를 농림업, 축산에서 검증</li> <li>• 분노 처리와 퇴비 만들기를 생각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 관찰, 등산, 하이킹</li> <li>• 희소 식물, 곤충을 관찰</li> <li>• 풍경을 즐긴다.</li> <li>• 삼림, 초원, 습원의 사계절을 관찰</li> <li>• 사계의 삼림을 산책, 체험 캠프 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라피 효과의 분석한다</li> <li>• 표현문화 요법을 시험해본다.</li> <li>• 삼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자</li> <li>• 약초의 연구를 하자</li> <li>• 숲의 고장학을 실천해보자</li> <li>• 아로마 테라피를 알자</li> </ul>

종합학습 프로그램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삼림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삼림테라피, 순환형사회, 바다와 산의 관계성 등을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그리고 생활양식 등에 접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삼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초심자나 아이들을 비롯하여 이용자가 삼림에 새로움이나

관심을 가지고 산림의 다양한 역할 등을 깨닫고 보다 깊게 이해하도록 이용자의 수준이나 이용목적과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산림체험 프로그램의 추진을 원만하게 하기위하여 교육관계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제휴를 하고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정보발신을 위하여 지역의 시설이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가자를 폭넓게 참여시키고 있다.

산림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가희망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네트워크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고 힘든 노동에는 참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재미있는 이벤트라면 참가 하려는 사람 등도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도시주민들 중에는 이러한 산촌지역의 매력을 느껴보고자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산촌지역의 전통문화와 풍부한 산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도시민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산촌지역의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 2-2 의료관계자와 제휴를 통한 산림테라피(森林セラピー)의 운영

산림은 종래부터 산림 안에서 여러 활동을 통하여 보양의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었지만 최근 도시화의 진전이나 스트레스 사회의 진행에 따라 산림이나 수목 등이 지니고 있는 치료효과를 활용하여 생활 습관병의 예방이나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산림욕 등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산림욕에 대해서는 산림 내외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보면 혈압을 내리는 효과나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의학적으로 규명되고 있고<sup>11)</sup> 산림은 건강 만들기를 위한 야외활동이나 기분전환 등을 통하여 심신과 인간을 재생시키는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은 아이들에서 고령자까지의 모든 세대의 건강만들기의 장소로 이용됨과 함께 특히 일본사회에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sup>12)</sup>에 따라 고령자 등이 사는 보람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산림이 가진 인간 건강증진과 질병치유의 효과에 대한 관심은 이미 스위스나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는 높아지고 있고 특히 독일에서는 크나이프(Kneipp) 요법<sup>13)</sup>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치유의

10) 유기준(2009), 「앞의 논문」, p.390

11) <http://www.forest-therapy.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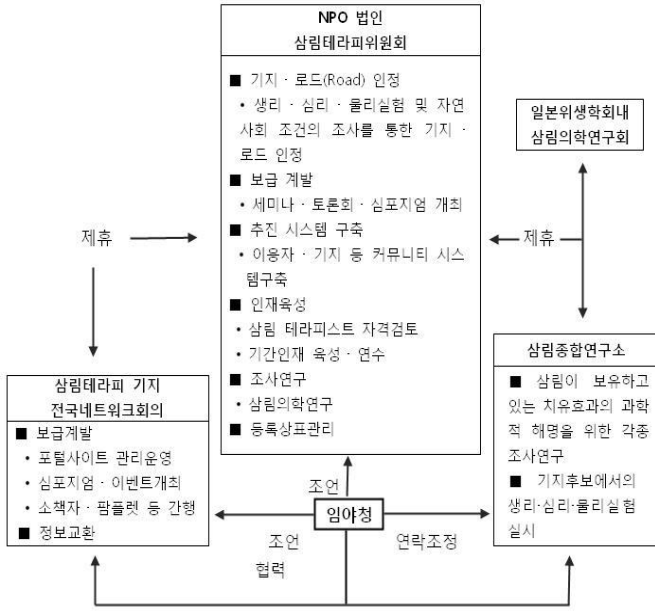
12) 일본의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의 비율은 1995년에 14%를 넘었으며 2007년에 약 20%를 넘었고 2035년에는 30%를 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오사다 마사오(2007), 「일본의 노인 심리학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및 워크샵 p.64)

숲>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2017년까지 5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숲을 이용한 치유센터건립에 나설 계획이다<sup>14)</sup>.

최근 자연 속에 몸을 두고 자연의 은총을 누리면서 자신의 자연치유력을 끌어내는 삼림치료요법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자연이나 삼림 속에서의 생활을 통해 인간 자신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의학요법이 확립되고 있다.

이러한 삼림요법은 일본에서는 삼림테라피(森林セラピー)라 불리는데 그 운영은 삼림테라피 기지(森林セラピー基地) 및 삼림테라피 로드(森林セラ피-Road)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삼림테라피 기지란 삼림치유의 효과가 삼림의학적인 면에서 전문가에 의하여 검증되



<그림- 1> 삼림테라피사업의 협력과 제휴도  
(<http://www.forest-therapy.jp>)

고 관련시설 등 자연, 사회조건이 일정 수준으로 정비된 지역이다. 이들 삼림테라피 기지(森林セラ피-基地)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운동요법, 식사요법, 작업요법, 방향요법에서 기공법, 자립훈련법, 카운슬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13) 크나이프 요법은 120여 년 전 독일 뮌헨 인근의 뇌리스호펜 마을의 가톨릭 사제였던 세바스찬 크나이프(F.S.Kneipp, 1821-1897)신부에 의해 고안된 자연요법으로 냉수욕에 초점을 맞춘 물 요법을 중심으로 산림산책을 하는 운동요법, 영양균형을 맞추는 음식요법, 허브나 약초 등을 이용한 요리법 및 입욕법, 그리고 심신과 자연의 조화를 도모하는 조화요법 등으로 구성된 자연요법이다 (유이화(2009), 「선진국의 삼림치유효과 활용사례 1」, 『숲과 건강』, 2009.3.)

14) 삼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사)삼림치유포럼에서는 <숲, 건강,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숲의 건강진 및 질병치유효과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2008. 10.16).

김기원(2001), 「산림요양센터 모델을 위한 기초연구」, 『산림과학』, 제13권 p.p 63-75

이우충(2008), 『삼림욕』, 김영사

전영우(2001), 「녹색관광과 숲 문화체험사업을 통한 산촌활성화 방안모색」, 『산림과학』 제13권 p.p 5-18

<http://www.forest.go.kr>

준비해놓고 개인의 체력이나 기호에 맞춰 <마음과 신체의 건강 만들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삼림테라피 로드(森林セラピーRoad)란, 워킹로드라고도 불리고 20분 정도의 보행이 가능한(연장 가능) 지형이나 풍경 등을 고려하여 만든 복합적인 산책로이다. 모두 전문가에 의하여 과학적 효과의 검증을 통해 삼림테라피 실행위원회가 인정 곳이고 의료 보건 기관 등과의 제휴를 통하여 각종 지원도 받고 있다.<sup>15)</sup>

일본전역에서 이러한 삼림의 효과를 건강증진과 재활치유에 활용함으로써 삼림정비는 물론 농산촌 지역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삼림테라피 종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04년 초반부터 “삼림테라피연구회” 발족을 시작으로 다수의 기업과 대학, 삼림종합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삼림이 가진 테라피 효과의 증명 및 응용연구 프로젝트이다.<sup>16)</sup>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삼림테라피 사업은 삼림테라피위원회, 임야청(林野庁), NPO법인, 일본위생학회 등이 협력과 제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그림-1>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는 의료관계자와 제휴를 통한 삼림을 활용한 테라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자연이나 삼림 속에서 운동요법이나 삼림욕 등을 통하여 자연치유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의료, 복지산업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전략은 다음과 같다.<sup>17)</sup>

### 2-2-1 삼림테라피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전략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의 삼림테라피 프로그램 개발은 모든 세대의 사람과 여러 신체기능을 가진 사람이 건강 만들기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4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일반 보양객 대상 프로그램 : 평소의 건강 체크로 시작되고 그 심신의 상태에 따라 생활습관병 예방, 레크리에이션, 카운슬링 등의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생활습관병 예방에서는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복수산책 코스에서 보행을 하고 카운슬링에서는 평소의 고민이나 문제를 삼림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경감,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고령자 프로그램 : 삼림환경을 이용

15) <http://www.forest-therapy.jp>

16) 지경배(2006), 『강원도 농촌어메니티 자원실태 및 활용방안연구』, 강원발전연구원, p.70

17)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エコリンク・アソシエーション(2007), 『森林体験型教育プログラム開発による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事業報告書』 pp 2-7

한 보행 리허빌리테이션(전도예방), 회상법, 카운슬링, 공작 등을 하고 예방의료 및 리허빌리테이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인지증 증상을 가진 대상자의 경우에는 삼림환경 속에 몸을 맡기고 산책하면서 관심을 바깥세상으로 향하는 회상법의 수법도 곁들여 치료를 한다. 셋째,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 보행·감각 리허빌리테이션(주로 신체·고차 뇌기능 장애인 대상), 카운슬링, 공작이나 산책 등의 교육활동을 한다. 넷째, 교육자 대상 프로그램 : 학교교육이나 유아교육 분야에서 오감 발달 촉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용임산물의 수확이나 가공, 삼림 보전 경작업, 운동, 공작, 음악, 게임 등 각종 프로그램을 행한다.

프로그램은 다음의 8항목을 주된 활동 단위 프로그램으로 하고 이들의 편성에 의해 개개의 대상자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첫째, 산책 : 삼림 내에서 산책(삼림욕)을 하며 심신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또한 보행 리허빌리테이션, 전도예방 트레이닝, 비만 예방도 겸한다. 둘째, 작업 : 작업요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복수의 인원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삼림환경과 일정면적을 확보한다. 셋째, 카운슬링 : 숲 속을 걸으면서 혹은 숲 속의 휴게장소에서 카운슬링이나 카운슬링교육을 한다. 넷째, 놀이와 공작 : 특히 수학여행 등을 대상으로 하고 삼림 속에서 놀이를 통하여 건전한 성장발달을 촉진한다. 또 환경교육도 겸한다. 다섯째, 휴양과 예방과 치료 : 삼림환경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일정시간의 휴양을 얻으면서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임상별 환경을 다르게 한다. 호흡법이나 자율훈련법과 아로마 테라피도 포함한다. 장기에 걸친 질환치료나 수술 후의 요양 등에도 응용한다. 여섯째, 예술과 조형 : 삼림활동 속에서 그림이나 사진촬영 또는 조형이나 콜라주 등의 예술에 몰두하고 내적 에너지를 분출시킨다. 일곱째, 식사요법 : 일상 식생활 체크와 식사지도를 하고 신선한 각지의 향토식재료에 의한 식사를 즐긴다. 여덟 번째, 건강 체크 : 비만도나 평소 생활습관의 체크 또는 삼림테라피 전후의 혈압과 맥박 측정이나 기분평가 등도 한다.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 담당자로서 삼림인스트럭터(森林インストラクター, 삼림지도원)가 중심이 되고 의료 복지관계자와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구체적인 요구에 응하고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 입안과 실행을 한다. 이러한 삼림인스트럭터(森林インストラクター)제도는 임야청(林野庁)에서 1992년부터 인증된 자격으로 자연체험의 장이나 해설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인력양성을 위한 것이다.<sup>18)</sup> 그러나 다른 지역의 NPO<sup>19)</sup>에서는 아로마테라피 등 삼림의학 전반의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가

18) 김상윤(2001), 「앞의 논문」, p.52

이드 북 형태의 책을 발간하고<sup>20)</sup> 산림테라피가이드(森林セラピーガイド)<sup>21)</sup>와 산림테라피스트(森林セラピスト)<sup>22)</sup>를 양성하고 있고 산림테라피 검정시험<sup>23)</sup>을 통하여 그 자질을 더욱 더 향상시키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실시 계획 진행 방법은 첫째, 평가단계 : 대상자의 성별, 연령, 특징(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일상생활동작, 산림 활동 경험 유무, 성욕, 알레르기, 기호, 기타에 관해서 미리 평가를 하고 보다 원활히 효과적인 산림요법 프로그램의 기반을 준비한다. 둘째, 목표 수립단계 : 산림요법에서 지향하는 목표(단기, 중기, 장기)를 만든다. 그때 전문의, 간호사, 작업요법사, 이학요법사, 보건사, 영양사, 카운슬러, 사회복지사 등의 각 의료, 복지전문직과 연계를 하고 최선의 목표를 정한다. 셋째, 구체적인 방법 구상단계 :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작업, 산책, 레크리에이션, 리허빌리테이션, 휴양, 요양, 기분전환, 아로마테라피, 조형 활동, 카운슬링, 보육, 또는 이들의 혼합 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목표를 세운다. 넷째, 실행 후 평가 단계 : 프로그램 실행 후에는 반드시 평가와 반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깨달은 혹은 깨닫지 못한 효과나 프로그램의 내용, 실효체제, 설정 환경 등 다음에의 과제를 모아 대상자에게 제시한다.

치유의 프로그램은 6가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첫째, 자연요법체험 프로그램 : 카운슬링, 의사소통, 온천요법, 호흡법, 산림요법, 정신치료, 운동요법, 기공법 등을 실시한다. 둘째, 식물요법 프로그램 : 약초, 약나무, 아로마테라피, 한방, 식물요법 등을 실시한다. 셋째, 체험요법 : 작업요법, 치유의 숲만들기 연구, 산림레크리에이션, 도예체험, 그림그리기, 사진, 자연체험, 유아교육체험, 원예 체험, 승마체험 등을 실시한다. 넷째, 식이요법 : 요리, 약초와 지역특산 식자재를 활용한 요리, 가공품, 산나물, 허브식용 등을 실시한다. 다섯째, 관찰요법 : 자연과학, 자연관찰, 야생초관찰, 식물관찰 등을 실시한다. 여섯째, 표현문화요법 : 역사, 민화, 생활문화, 그림그리기, 음악, 사진, 도예, 등을 실시한다.

19) 特定非営利活動法人 森林セラピー ソサイエティ (<http://www.fo-society.jp>)

20) 平野秀樹, 宮崎良文, 香川隆英編(2009), 『森林セラピー』 - 森林セラピスト(森林健康指導士)養成・検定テキスト-, 朝日新聞出版

21) 산림을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산림욕 효과가 오르도록 산책이나 운동을 현지에서 안내하는 자이다. 산림에 관한 환경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산림의 치유효과에 관한 생리학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 산림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림산책과 보행,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하여 올바른 산림테라피 방법을 조언해 준다. (<http://www.fo-society.jp/therapist>)

22) 산림테라피가이드의 식견에 더하여 산림을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테라피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자이다. 산림건강 과학과 건강심리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닌 자로 이용자에게 보양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며 산림테라피의 실천을 조언해 준다. (<http://www.fo-society.jp/therapist>)

23) 平成21年(2009년)부터 산림테라피 검정시험 1급과 2급을 실시하고 있다. (<http://www.fo-society.jp>)

이러한 프로그램 실행 후에는 실행계획의 진행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평가와 반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깨달은 혹은 깨닫지 못한 효과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삼림 테라피의 효과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일상적에서 변화 등을 기록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 3. 삼림자원의 활용을 위한 정보발신 전략

삼림자원의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삼림체험프로그램이나 체험 가능한 삼림이나 지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편리하게 하여야하고 지역에 관한 정보의 발신전략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하여야한다.

이를 위하여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도시주민 들이 관심을 갖도록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도시의 NPO와 여행회사 등 도시주민과 오랜 관계를 이어온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보의 발신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의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자립관측형정보발신전략으로 지역의 매력을 한층 더 많이 효율적으로 발신하기 위하여 지역이미지 창출 작업과 정보수집과 발신을 위한 전문 집단을 지역 내에 조직 하였다.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외부>을 많이 의식하여야 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지역의 내부>에 그 만큼의 소재가 없으면 지역의 매력을 알릴수가 없다.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매력을 최대한 꺼내는 것이 정보발신의 매력으로 이어지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마스크 활용형 정보발신전략으로 마스크에 채택 받을 수 있도록 “화제 만들기”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고시마 현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자 승마” 지도자육성과 자원봉사 육성사업을 실시하였고 삼림을 활용한 “음악하이킹”에 의한 국제교류 사업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화제 만들기 만이 아니라 정보를 정기적으로 마스크에 알림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평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고 단체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스크에 DM 발송과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풀뿌리 전개형 정보발신전략으로 수학여행이나 단과세대<sup>24)</sup>를 목표로 관계있는 도시부의 NPO나 여행회사 등과 연계하여 내방객을 유치하였다. 또한 다양한 지역 연합을 통하여 관계자들에게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의 지명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24) 1947년부터 1949년 무렵의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

### 4. 삼림자원 활용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는 이상에서 고찰한 프로그램의 사업화를 위한 단·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다. 사업화를 위한 전략으로 5개 사업, 12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 각각의 체제와 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추진체제를 구축하였다. 사업명과 세부시책의 내용은 <표-3>과 같다.<sup>25)</sup>

<표-3>사업화를 위한 세부시책과 조직

사업명	시책	체제 · 조직	일 정			
			내 년	단 기	중 기	장 기
1. 아름다운 산 만들기 사업	① 지역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산」의 형태 명확화	각시정촌, 삼림조합, 민간				
	② 「아름다운 산 만들기」 위한 태세정비·나무 자르기 응원단 만들기					
	• 임업의 산으로서 태세정비	각시정촌, 삼림조합				
	• 교류의 산으로서 태세정비	삼림조합, 민간, 삼림자원봉사, NPO				
2. 나무 이용 촉진 사업	① 나무이용에 대한 생각 및 이해					
	• 교육계본형이벤트 학습강좌의 개최	각시정촌, 삼림조합 민간				
	• 소비자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목재유통의 계획세우기	삼림조합, 민간(제대업자, 설계, 공무점 등)				
	② 나무 사용·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스타일의 창조에 의한 나무이용 촉진					
	• 가까운 생활 속에서의 (나무사용) 촉진	삼림조합, 민간(제대업자, 설계,공무점, 숙박시설 등) 시정촌				
	• 지역과 깊게 가까이하는 나무사용의 촉진~본고장의 목재로 집 만들기	삼림조합, 민간 (제대업자, 설계, 공무점 등) 시정촌				
	• 본고장의 재료를 이용한 지역경관의 수경~공공사인계획, 마치나미 만들기	시정촌, 삼림조합, 민간 (제대업자, 설계,공무점 등)				
	③ 새로운 관점에서의 나무 이용 촉진					
	• 지역의 목재, 목제품 PR사업	삼림조합, 민간 (제대업자, 설계, 공무점 등)				
	• 삼림인증제도의 인증취득	삼림조합 · 민간				

25)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エコリンク・アソシエーション(2007), 『森林体験型教育プログラム開発による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事業事業報告書』 p.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의 검토</li> </ul>	시정촌, 삼림조합, 민간(제재업자, 건설업자, 에너지-기술자 등) 학식경험자 등				
3. 산촌 문화 발전 사업	① 산촌문화의 달인·명인 찾기	NPO, 시정촌				
	② 산촌문화의 체험프로그램 만들기	NPO, 시정촌, 민간				
	③ 산촌 문화를 전하는 사람 만들기	NPO, 시정촌, 민간				
4. 유객 홍보 사업	① 지역이미지 만들기					
	• 장래적인 CI사업으로의 활동	광역단시정촌, NPO				
	② 정보발신수단검토					
	• 홈페이지의 강화·효율화	광역단시정촌, NPO				
	• 팸플릿 정리통합	광역단시정촌, NPO				
	• 광역체험관광 팸플릿 작성	광역단시정촌, NPO				
• 도시NPO와의 네트워크화에 의한 정보발신	NPO					
5. 주변 체제 체험 촉진 사업	① 체험형 관광이용 상품개발					
	• 지역자원의 발견·발굴 평가	NPO, 시정촌				
	• 체험프로그램 만들기	NPO, 시정촌				
	② 광역에서의 안내유도·정보시스템의 정리					
	• 공공사인	시정촌				
	• 광역에서의 관광교통거점의 정비	시정촌				
	• 지역 내를 회유하는 계획 세우기	광역단시정촌, NPO				
• 배리어프리 <sup>26)</sup> 유입체제 정비	시정촌, 민간					
◎ 추진 체제의 구축	① 기존 관광관련 관계자의 제휴 강화	민간사업자, 단체				
	• 광역체험형 관광진흥 추진조직 설립	민간사업자, 단체				

첫째는, 아름다운 산 만들기 사업이다. 아름다운 산의 형태를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산을 임업의 산과 교류의 산으로 형태를 정비하는 것이다. 임업의 산이란 종래의 목재생산기로서 의미이고 교류의 산은 삼림자원의 새로운

26) 신체장애자나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상품을 만들거나 건물을 설계하는 것

활용 즉 환경메세지성이 강한 상품을 만들어 산촌지역과 도시와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정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아름다운 산 만들기를 위하여 민간중심으로 삼림자원봉사연락회를 발족하였다. 이 조직에서는 삼림자원봉사와 현존 산의 손질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산주인과 사이에서 조정의 역할을 하고 또한 삼림욕 등 삼림을 체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도의 정비나 삼림에 관한 인터프리터의 육성 등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삼림자원봉사 연락회는 삼림조합과 함께 지역의 아름다운 산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나무 이용촉진 사업이다. 나무이용촉진사업의 추진은 삼림조합이나, 제재업자, 설계나 공무점 등, 각각의 전문가 그룹이 중심이 되어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을 네트워크 하여 지역전체의 나무이용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러한 전문가에 의한 사업적 검토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나무이용촉진 이벤트와 학습강좌를 개최하고 소비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도모한다. 또 목질바이오매스 등의 이용도 지역내외의 임업관계자 및 학계관계자와 제휴하면서 검토한다.

셋째, 산촌문화 발신 사업이다. 도시와 산간부의 교류를 촉진하는 정보발신사업이다. 산촌문화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을 찾고 또한 산촌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슬로우 라이프)을 실현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를 NOP와 시정촌(市町村), 민간에 의하여 조직하였다.

넷째, 관광객홍보사업이다. 미나미사쯔마(南さつま)지역의 이미지를 만들고 효과적인 정보발신을 위한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검토하고 만들고 있다.

다섯째, 주변체제체험촉진사업이다. 체험형 관광 상품을 만들고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각각 전문분야에서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삼림조합 등의 전문가 집단에서는 종래의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추진과 함께 일반 시민이 산에 들어갈 때 안내역할을 하며, 목재 소비를 촉진하는 목재 유통 본연의 모습과 임업을 유지하는 산촌의 생활 문화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다섯 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삼림자원 활용의 사업화를 위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사업화를 위한 추진체제는 기존의 관광관련 관계자와 제휴를 강화하며 민간사업자와 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서로 제휴를 깊게 하면서 장래 사업의 계획과 역할의 분담, 이견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사업의 운영을 첫째, 단기(차년도~2,3년 이내) : 조기에 착수할 필요가 있고 효과가 2~3년 이내에 나올 수 있는 것. 비교적 착수하기 쉽고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인 것. 둘째, 중기(5년 이내) : 활동하고 나서 5~6년 후에 효과가 나오는 것. 활동까지는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고 5년 후 쯤에 틀이 잡히는 것. 셋째, 장기(5~10년) : 활동을 하고나서 10년 정도에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단·중·장기적으로 차별화하였다.

이러한 단·중·장기적인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비가 장애가 되지만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는 지역의 NPO가 중심이 되어 산·관·민이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다. 전략의 전개 방법은 지역자원의 장래에의 변동요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빠트리지 않는 요소이다. 또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전략 목표도 여러 가지의 목표가 복잡하게 교착하는 것에서 반드시 중점 목표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아니고 각 목표 간의 조화를 중요시 하고 있다.

## 5. 맺음말

일본에서 삼림은 단순히 목재와 그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자원의 공급처로서의 역할 뿐 만아니라 삼림체험형관광, 삼림체험교육프로그램, 삼림테라피(森林セラピー) 프로그램 등 환경 메시징성이 있는 새로운 상품을 운영하면서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삼림환경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활동을 통하여 삼림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삼림을 인간의 건강증진과 질병치유에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복지정책의 실현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삼림테라피와 관련하여 의학 전반의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가이드 북 형태의 책을 발간하고 삼림테라피가이드(森林セラピーガイド)와 삼림테라피스트(森林セラピスト)를 양성하고 있고 또한 삼림테라피 검정시험을 통하여 그 자질을 더욱 더 향상시키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정책의 운영은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NPO 그리고 민간 등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의 새로운 삼림활용전략은 삼림체험형종합학습 프로그램과 삼림테라피(森林セラピー-Forest Therapy)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삼림을 찾는 개인의 성격과 대상자에 따라 차별화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삼림체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은 물론 도시의 NPO와 여행사 등 도시주민과의 오랜 관계를 이어온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발신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삼림자원 활용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정촌(市町村)과 관련조합, 민간, 그리고 NPO 등이 연계되는 추진체제의 구축과 단·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만이 중심이 되지 않고 광역지자체와 시정촌(市町村), 마을단위에서의 민간과 관련조직 그리고 NPO 등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나미사쓰마(南さつま)지역에서의 삼림활용전략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 【参考文献】

- 김기원(2001), 「산림요양 센타 모델을 위한 기초연구」, 『산림과학』, 제13권, p.p 63-75
- 金相潤(1996), 「森林レクリエーション政策の社会経済学的研究」 東京大学 博士学位論文, p.p 153-213
- 남효창(1999), 「삼림환경교육-독일의 자기학습식(self-guided)현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삼림휴양연구』 제3권12호, p.p 16-17
- 유이화(2009), 「선진국의 삼림치유효과 활용사례 1」, 『숲과 건강』, p.30
- 유기준(2009), 「일본그린투어리즘의 전략과 실제」, 『일본문화연구』 제40집, p.397
- 오사다 마사오(2007), 「일본의 노인 심리학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및 워크샵. p.64
- 전영우(2001), 「녹색관광과 숲 문화체험사업을 통한 산촌활성화 방안모색」, 『산림과학』 제13권, p.p 5-18
- 奥敬一, 香川隆英, 田中伸彦編著(2007), 『魅力ある森林景観づくりガイド : ツーリズム、森林セラピー、環境教育のために』, 全国林業改良普及協会
- 平野秀樹, 宮崎良文, 香川隆英編(2009), 『森林セラピー』 - 森林セラピスト(森林健康指導士)養成・検定テキスト-, 朝日新聞出版
-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エコ・リンク・アソシエーション(2006), 『森林体験型教育プログラム—新たな森林パートナーシップの創造—実施計画書』
-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エコ・リンク・アソシエーション(2007), 『森林体験型教育プログラム開発による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事業事業報告』
- 特定非営利活動法人 森林セラピー ソサイエティ (<http://www.fo-society.jp>)
- <http://www.forest.go.kr>
- <http://www.forest-therapy.jp>

## 要 旨

日本での森林に対する認識は、単に木材とそれに関わる製品を生産する資源の供給源としての役割だけでなく、森林体験型観光、森林体験教育プログラム、森林セラピープログラムなど、環境メッセージ性のある新しいプログラムが営まれる場所として開発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政策は森林環境教育という新しい教育活動を通じて、森林に対する包括的で総合的な認識のきっかけをつくり、森林を健康増進と疾病の治癒に生かして、国民の健康増進福祉政策の実現空間としての活用と繋がる。

本稿の研究地域での森林活用戦略は、森林体験型総合教育プログラムと森林セラピープログラムをもって運営されているが、個人の性格と被体験者の特性を考慮し、多様なプログラムを営んでいる。また、森林体験の利用を促進するために、地域に関する多くの情報の発信戦略をとっており、市町村と関連組合、民間、NPOなどが連携する推進体制の構築と、短・中・長期計画を立てるなど、体系的な努力を傾けている。

キーワード：森林活用戦略、森林セラピー、森林環境教育、森林セラピスト、  
森林体験型教育、森林体験型観光

투 고 : 2009. 5. 31  
1차 심사 : 2009. 6. 13  
2차 심사 : 2009. 6. 27